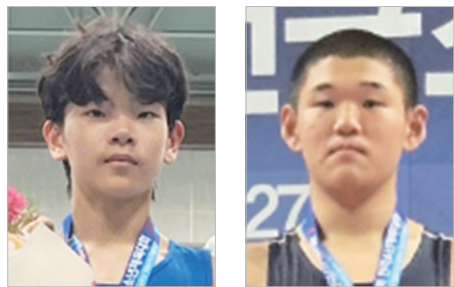


광주체중 이창욱 복싱·합평중 심석무 레슬링 ‘금빛 피날레’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폐막

광주체육중 배드민턴 8년만 ‘금’
종목 고른 활약 다관왕·연패 성과
광주 메달 75개·전남 메달 52개



이창욱

심석무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피날레를 금빛으로 마무리했다.

개인전도 단체전도 대회 마지막날까지 선전이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이창욱(광주체육중 3년)이 17년만에 복싱 남자 15세이하부 금메달을 선사했고 전남에서는 심석무(합평중 3년)가 레슬링 남자15세이하부 정상에 오르며 기량을 과시했다. 단체전은 광주체육중 배드민턴이 8년만에 소년체전 금메달을 품에 안은 가운데 전남 광영중은 여자축구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창욱 복싱 남자15세이하 17년만에 금메달
이창욱은 27일 김해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복싱 핀급 결승에서 배준호(서울체육중 3년)를 5-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창욱의 금메달은 남자 15세이하에서 2008년(제37회 소년체전)이후 17년 만에 광주에서 나온 승전보다.

배드민턴 단체전도 금빛 낭보를 전했다. 광주체육중은 결승에서 경기선발과 폴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3-2 승리를 거두며 파리올림픽금메달리스 안세영 재학시절인 2017년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선발과의 경기 승률은 4-6 정도로 다소 약세였으나 코트에서의 결과는 달랐다. 선수들의 투지와 지도자의 전략이 빛을 발하면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엄유주

(2년)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밖에 양궁 중등 혼성단체전은 경기선발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기록했다. 소프트테니스 여자15세이하부 단체전에서도 신광중이 결승에서 경북선발에 1-2로 패배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펜싱 사브르 여중부 단체전에서는 대전선발과의 준결승에서 패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선수단도 마지막 날까지 값진 성과를 올렸다. 레슬링 남자15세이하 그레코로만형 92kg 급에 출전한 심석무가 정상에 오르며 전남 성적에 힘을 보탤고, 축구 여자15세이하 광영중은 결승에서 울산현대중등에 0-5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수영 여자10세이하 자유형 50m에 나선 김루아(여수 한려초4년), 복싱 남자15세이하 웰터급 손지후(손복성 3년), 미들급 이승민(곡성복상체육관)은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메달 17개 증가·전남 기록에서 성과
광주선수단은 총 75개의 메달(금 19, 은 24, 동 32)을 획득하며 지난해(총 58개)보다 금1·은6·동10개가 증가, 17개 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참가 종목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가 주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동메달 수가 급증하면서 전체적인 경기력 수준이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졌음을 방증했다.

다관왕·연패도 눈부신 성과다. 체조 최원재(J리듬&체조클럽)는 개인종합, 철봉, 평행봉, 링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2008년(제37회) 이후 17년 만에 4관왕을 차지했다. 송채연(광주체육중 3년)도 이단 평행봉과 평균대 2관왕에 오르며 체조 강세를 이어갔다.

씨름에서는 박유찬(화정남초 6년)이 정상에 오르며 2011년(제40회)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이 나왔다. 골프 단체전에서는 2015년 정식종목 채택 이후 광주의 첫 은메달을 기록했다. 탁구는 송정초가 1997년(제26회) 이후 28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했고, 문화중이 농구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16년만에 입상에 성공했다.

전남선수단은 총 52개의 메달(금 13·은 13·동 26)을 획득했다. 지난해(금 20·은 13·동 33)보다 메달수는 줄었지만 기록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육상에서 이하은(백운중 3년)이 멀리뛰기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김태민(하당중 3년)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각각 2연패와 함께 2관왕에 올랐다.

수영에서는 문승유(영암초 6년)가 평영 50m와 1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등극했고 특히 평영100m에서는 대회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정근민(사창초 6년) 역시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 소년체전 초등부를 2관왕으로 마무리하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수영 남자12세이하 최우수선수로도 선정됐다.

바둑 여자 단체전에서는 김나연(3년), 반애나(1년), 조연서(1년·이상 한국바둑중)가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4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사격 공기관총 개인전에서는 박세훈(나주중 2년)이 580점(종전기록 579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광주체육중 배드민턴팀이 27일 밀양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전 결승에서 경기선발과 폴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3-2 승리를 거두며 2017년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단체종목은 선수층이 얇아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바둑, 축구 등 6종목에서 10개(금2·은2·동6)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한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26년 5월 23-26일 4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오늘 울산과 홈경기...도약 발판 마련할까

광주FC가 울산HDFC를 상대로 치르는 5월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6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5월 5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미 리그와 코리아컵을 더해 6경기를 치렀고 울산전을 통해 한 달을 매듭짓는다. 뼈대한 일정에도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광주는 15경기에서 6승 4무 5패(승점 22)를 기록하며 6위에 자리 잡고 있다. 반환점

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순위 싸움을 펼치는 상위권 구단과의 차이가 크다.

광주는 6월을 기회의 달로 보고 있다. 총 5번의 리그 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광주보다 순위가 높은 팀과의 매치업은 단 1회에 불과하다. 이에 광주는 5월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을 잡고 순위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번 상대 울산은 리그 3위(8승4무5패·승점 28)에 올라있다. 광주보다 6점 앞서 있긴 하나 2경기를 더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가 향후 몇 경기에서 상승세를 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자다.

조혜원 기자

이민성 전 대전 감독, AG·올림픽 축구대표팀 사령탑

데뷔전 6월 5일 호주 친선경기 광주FC 문민서 소집명단 발탁

이민성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51)이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 데뷔전은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호주 U-22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호주전이며 광주FC 문민서가 이날 친선경기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2026 아시아게임(AG)과 2028 올림픽을 지휘할 U-22 대표팀 감독에 이민성 전 대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민성 감독은 선수 시절 부산 대우 로얄즈(부산 아이kons), 포항 스틸러스, FC서울에서 활약하며 K리그 200경기에 출전했다.

국가대표로는 두 번의 월드컵에 출전하며 A매치 67경기에 나섰다. 특히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1997년 9월 28일 열린 1998 프랑스 월드컵 최종예선 일본 원정 경기에서의 역전 골로 전국구 스타플레이어로 발돋움했다.

선수 은퇴 후 2010년 내셔널리그 용인시청의 플레잉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광주우 형



이민성

다(중국), 강원FC, 울산 현대 등 다양한 클럽의 코치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대한민국 U-23 대표팀 수석코치로 부임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에 기여했다.

2020년 12월부터 프로축구 대전 감독을 맡아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2024년 5월까지 팀을 이끌었다. 2022시즌 대전의 1부리그 승격도 이끌었다.

이민성 감독의 사령탑 데뷔전은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호주 U-22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호주전이다. 이민성호는 9일에는 호주와 비공개 연습경기도 치를 예정이다.

호주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할 명단은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소집 절차를 위해 이번에는 현행 1위 원정지인 해당 연령대의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협회 전임지도자들과 논의해 선발했다.

연합뉴스

우상혁, 아시아육상선수권 결선행...2연패 순항

우상혁(29·용인시청)이 단 한 번의 점프로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우상혁은 27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15를 1차 시기에 넘었다.

경기는 1m85부터 시작했지만, 유력한 우승 후보인 우상혁은 2m15에서 첫 점프를 했다.

개인 최고 2m36, 올 시즌 최고 2m31 기록을 보유한 우상혁은 2m15를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었다.

이날 예선에는 23명이 출전했고, 13명이 결선 진출권을 쥐었다.

우상혁과 푸자오쉬안(대만), 파텍 바이트 야불(오만)이 2m15를 넘어 결선에 진출했고, 2m10을 넘는 점퍼와 2m05에 성공한 선수 중 일부가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은 구미에서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그는 202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에서 2m28을 넘고 우승했다.

우상혁이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한 건, 2017년 인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이후 6년 만이었다.

아시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은 29일 오



우상혁(용인시청)이 27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높이뛰기 예선 2m15 1차시기 점프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 5시 40분에 시작한다.

아직 올 시즌에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현역 최고 점퍼 루타스 에사 바르심(카타르)이 이번 대회에도 불참해 우상혁의 아시아선수권 2연패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우상혁은 2021년 도쿄 올림픽 4위(2m35),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과 세계 실외선수권 2위(2m35), 2023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의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올해에는 세계실내선수권(2m31)과 바르심이 주최한 초청 대회 왓그레비티첼린지(2m29) 등 출전한 4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고교생이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한국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우상혁은 “한국 팬들 앞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KIA 박정우, 햄스트링 2단계 손상...추후 재검진

이범호 감독 “중견수 고민 많아”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1군에서 이탈하게 됐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전을 앞두고 “2주 뒤에 MRI를 다시 찍어볼 것이다. 그때 재활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나올 것 같다”며 “최원준, 이우성 모두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박정우가 잘해주고 있었다. 박정우가 빠져 중견수를

육이 2단계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단은 2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복귀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전을 앞두고 “2주 뒤에 MRI를 다시 찍어볼 것이다. 그때 재활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나올 것 같다”며 “최원준, 이우성 모두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박정우가 잘해주고 있었다. 박정우가 빠져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김호령 혼자다. 이 부분이 고민이다. 최원준은 10일을 채우고 올라오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우는 올 시즌 3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0 50타수 14안타 4타점 OPS 0.730을 기록했다. 주로 외야 백업과 대주자로 기용됐으며 최근에는 타격 페이스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KIA는 박정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퓨처스에서 외야수 정해원을 콜업했다. 정해원은 1군에서는 12타수 1안타로 부진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는 타율 0.362 38안타 3홈런 16타점 4도루를 기록했다.

조혜원 기자